

大學院의 現況과 問題

金 潤 泰

(西江大 一般課程部 副教授)

I. 序 言

1953년에 소규모로 출범한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은 1983년 현재 169개 대학원(일반대학원 67개교, 전문대학원 102개교)에 석사과정 在籍生은 51,708명(이 가운데 일반대학원에는 27,340명)이나 되며, 박사과정 재적생은 8,170명이나 되는 비교적 큰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80년대 초부터 대학교육의 대중화 추세에 따라 대학원 교육의 需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학원에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다. 대학원은 첫째 창조적인 學術의 振興을 담당해야 하고 學術의 國際的 交流를 촉진하는 한편, 민족 文化를 창달하는 창조적 촉매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고등교육의 확충에 따라 확보되어야 하는 교수를 비롯한 학자의 양성을 통해, 이제까지 교수의 상당수를 해외 공급원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계로 사회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전략과 첨단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高級頭腦人力과 專門人力을 양성·배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학원이 짊어진 三大使命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의 현황은 이러한 기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허다하다. 사실, 우리 나라

의 대학원 교육제도는 徒弟式 교육을 취하는 舊 日本式 閉鎖型 制度와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歐美式 開放型 制度가 뚜렷한 원칙 없이 혼합되어 특색이 없고 형식과 구색만 맞춘 경우가 많아, 그 內實面에서는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에 대한 평가연구를 비롯하여, 고등교육관계 세미나 등에서 분석·제안된 대학원 교육의 과제를 보아도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시 간추려 보고 선결을 요하는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教育의 理念과 目標

대학원에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은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원은 學術진흥, 교수·학자의 양성, 그리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고급두뇌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中樞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원 규정 제 2조에 의하면, 대학원의 목적은 대학 교육의 목적인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深奧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精緻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일층 심오·정치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學術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대학원의 목표는 주르 基本學問 중심의 課程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래 다양하게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산업과 직업사회에서 先導的 역할을 수행하는 고급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에서도 또한 대학원은 主役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학원은 學問 중심의 課程과 專門職業 중심의 課程의 二元化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그 성격에 따라 제도와 정책이 달라져야 함은 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교육이 그 이념이나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우기 일부 대학 경영자들 사이에는 대학원 교육을 학부 교육의 附隨物로 생각하거나 외부에 대한 상징적 가치 외에는 본질적 가치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농후한 것 같다.

또한 대학원 교육을 대학 교육의 핵심적 부분으로 인식하려는 풍토도 조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미 대학 교육이 대중화 단계에 돌입해 있는 현실에서 대학원 중심의 고등교육체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대학이 선발된 소수 사람들만의 학습의場이었던 엘리트 단계에서는 대학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만의 共同體로서 동일한 수준과 형태를 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대중화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대학의 명칭을 가진 고등교육기관들은 그 형태만이 아니라 교육 및 연구의 수준이나 기능면에서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중화 단계에선 엘리트 단계와는 달리 대학이 同型, 同質의 학문 공동체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원 수준에서는 그 학부과정과는 달리, 모든 대학원이 일정한 교육수준을 유지함으로써 名實共히 최고 수준의 학문의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목표가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한, 不實한 대학원 교육은 惡循環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많은 人材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대학원보다 해외 유학을 選好한 것은 우리의 대학원 교육이 국제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제정립하여, 대중화된 대학 교육의 質을 補償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학부와는 다른 독자적인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제정립하되, 교수 또는 학자의 양성과 학술진흥을 추구하는 學問 중심의 學位課程과 사회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특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職業 중심의 學位課程을 二元化하여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學生選拔, 敎育課程 編成과 運營, 定員 및 學位管理 등의 특성이 부각되어야 함은 불문이다.

Ⅲ. 學生選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 정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大學院 定員規程도 크게 완화되었다. 따라서 대학원생수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전통적 대학원 교육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즉 종래의 '少數精銳敎育'이나 '徒弟式敎育'은 도전을 받기 시작했으며, 대학원 입학자격은 개방적이고 신축성 있게 변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學科別 定員配定도 신축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늘어나는 대학원 진학 희망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기대수준의 고급인력을 배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碩士課程의 경우 學部에서의 專攻과 관계없이 學士學位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博士課程의 경우 同系列의 碩士學位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志願資格의 開放性和 融通性은 특히 미국의 성공적 사례의 일면을 모방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GRE'와 같은 大學院進學 適性檢査, 學部 4년간의 成績, 추천서, 연구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여, 대학원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선발하고 있어, 豫言妥當度가 높은 선발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入學考査 이외에 다른 補完된 選拔制度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용

〈表 1〉 入學銓衡節次別 採擇 大學院數의 分布(%)

銓衡節次	一般大學院 博士課程	一般大學院 碩士課程	專門大學院 碩士課程
書類銓衡	2.1	10.4	19.4
專攻試驗	89.6	77.6	65.3
英語試驗	89.6	80.6	50.0
第 2 外國語試驗	64.6	13.4	7.1
面 接	25.0	23.9	39.8

〈資料〉 韓國大學教育協議會 提供

동성 있는 선발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우기 입학고사도 대학원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 실시하는가 하면, 筆記試驗을 面接考査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1982學年度 大學院入學銓衡에서 配點을 주어 채택한 각 전형절차별 대학원수의 비율을 보면 〈表 1〉과 같다. 역시 일반대학원의 博士課程은 專攻試驗, 英語試驗을 채택하는 대학원이 많았고 第 2 外國語試驗을 실시하는 대학원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一般大學院 碩士課程의 경우는 英語試驗을 채택하는 대학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공시험을 채택하는 대학원이 많았다. 그리고 제 2 외국어시험을 채택하는 대학원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專門大學院의 碩士課程의 경우는 전공시험과 영어시험을 실시하는 대학원이 비교적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면접시험은 일반대학원에 비해 전문대학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학원이 많았다.

1982학년도 대학원 입학시험 合格率을 보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52%, 박사과정은 51%, 그리고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66%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大學院 定員은 전원 충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83학년도 현재 대학원 定員充員率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각각 77.3%, 71.2%, 그리고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이 79.2%이었다. 따라서 대학원은 정원을 채우기 위해 무자격자를 선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定員自體가 人力需要나 社會的 需要를 훨씬 초과하여 책정된 것이 아닌지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우기 위의 통계는 어디까지나 전국적 평균치일 뿐, 대학원간에는 큰 격차가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부 대학원은 입학하기가 용이하다는 世評에 의해, 또 다

른 대학원은 교수진과 교육과정이 우수하다는 聲價에 의해 질적으로 자기 다른 志願者群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일정 수준의 대학원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대학성적, 연구계획서, 면접시험, 추천서 등이 전공시험 및 외국어시험 성적과 함께 入學査定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원의 목표(일반대학원 碩·博士課程 또는 專門大學院 석사과정)에 따라 강조되는 전형절차와 기준이 달라야 할 것이며 入學定員도 불필요하게 과대 책정하는 것도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IV. 教育課程 編成과 運營

대학원 교육에서도 敎育課程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우선 건설한 일반적 차원의 교육목표를 대학원마다 그 특성과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전공별, 학과별, 교과별로 각 수준의 교육목표가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내용을 선정·조직하고 이를 교수·평가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절차로 공인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과정의 문제는 매우 광범하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學點數와 그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는 석사과정의 경우 24학점, 박사과정의 경우 36학점으로 되어 있다. 만일 한 과목당 3학점 단위로 계산하면, 석사과정의 경우 8과목을 이수하게 되고 박사과정의 경우 12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따라서 共通 내지 副專攻 과목을 빼면 대체로 專攻 과목은 석사과정의 경우 3~4과목에 한정되며, 박사과정의 경우 5~6과목으로 한정된다. 그러면서도 修業期間은 실제로 길게 되어 있어 碩·

博士課程을 합하면 최소한 5~6년은 소요된다. 주로 강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면 학점수는 부족한 편이라 하겠다.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적어도 6학점을 추가하여 30학점으로, 박사과정은 14학점을 추가하여 50학점으로 늘리되, 研究學點(論文指導 내지 實驗實習)도 配定하여 연구방법에 대한 능력을 높이고 學問分野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修業年限이 길어지지 않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한편 碩·博士課程의 學生은 학입에 전념할 수 있는 full-time student를 원칙으로 하여, 이에 필요한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직업 중심의 전문과정의 학생이나 직장을 가진 학생은 每學期當 이수과목수를 2~3과목으로 제한하여 충실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教育課程의 編成과 運營의 閉鎖性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專攻課程 또는 學科間에 大學 또는 大學院間에 벽이 두텁고 상호 배타적인 경향도 있다. 학문발전의 동향과 직업전문화에 부응하기 위함은 물론 현존 資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開放的, 協同的, 廣域的 教育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절실하다.

일반대학원은 지나치게 零細性을 띠고 있어 授業單位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이와 대조적으로 전문대학원은 지나치게 過大性을 나타내어 부실한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면과 재정면에서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교내에서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간의 그리고 같은 대학원 학과간의 連繫性이 부족하다. 또한 학부와 대학원 講座間에도 중복되는 정도가 적지 않다. 나아가 다른 대학원과의 협동체제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문발전과 직업전문화의 추세에 비추어 두 가지 이상의 전공분야 내지 학과가 공동으로 '協同課程'을 편성·운영한다든가 별도로 새로운 학위과정인 '廣域課程'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협동과정은 이미 우리 나라 일부 대학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과정은 外國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의 大學院 學科가 學部課程의 學科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학부과정의 학과가 있어

야 同名의 대학원 학과의 설치가 가능하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문교부의 大學院 定員規程이 교육과정의 폐쇄성을 지속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일부 대학원들간에 서로 협동체제를 갖추고 협동강의 실시, 학점의 상호 교류, 그리고 도서관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 등은 점차 다른 대학원에도 확대·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프로그램이나 재정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協力體制의 강화는 교육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특히 '60년대 후반기부터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동향이기도 하다.

세째로는 評價方法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碩·博士課程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전과목 평균성적이 3.0(B₀) 이상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성적을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평가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평가는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실시됨으로써 학위의 社會的 公信力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방법의 개선과 교수의 평가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설사 학위취득 조건으로서 평균성적이 반드시 B₀ 이상일 필요는 없다고 보며, 실제 評定尺을 더 세분화하여 졸업조건을 성취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박사과정의 경우는 대부분의 교과목을 합격(P) 불합격(F), 또는 만족(S) 불만족(US), 또는 완성(C) 미완성(IC) 등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네째로는 學位論文 提出資格 要件과 論文審査 制度上的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教育法施行令에 의하며 碩·博士課程에서 각각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박사과정은 2種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학위(석사 또는 박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應試資格 要件으로서 등록 학기수 내지 과정이수 년한, 취득학점수, 평균성적 등이 중 삼중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외국어 시험을 입학시와 중복해서 실시하고 있어 개선할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응시자격 요건 중

취득 학점수는 소정의 총학점의 3분의 2 정도로 하고 평균성적도 B₀ 이상에 국한할 것이며, 외국어시험은 입학시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은 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대수준에 미달한 자는 조건부 입학을 허용한 후 대학원 재학중에 별도의 외국어 강좌를 수강케 하여(또는 자율적 학습을 통해) 응시 기회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기대수준에 도달하면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학문분야에 따라서는 반드시 2종의 외국어를 요구하기보다는 그 분야에 적결되는 외국어 하나라도 철저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의 도달도를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綜合試驗의 범위는 기초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모두 포함하되, 공통과목의 경우는 교육과정 편성시에 미리 밝혀줌으로써 교과 이수시부터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함이 좋을 것이다.

한편學位論文의 지도와 심사과정을 보아도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논문은 입학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도교수의 배정은 막연하고 논문을 위한 연구와 수강이 무관한 경우도 있다. 교수의 부담이 과중한 관계로 논문작성은 연구능력이 부족함에도 학생의 自律에 맡기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논문심사일 당일에 또는 임박해서 논문지도 내지 심사해야 하는 지도교수나 심사위원들의 고충과 부담이 교차되기도 한다. 이것이 결국 학위의 量産·濫發과 논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논문지도와 심사는 첫학기부터 시작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입학시부터 지도교수의 배정과 지도하에 학생들은 연구와 수강계획을 작성·추진해야 한다. 논문연구의 발표 기회는 계획·중간·최종 등 3단계에 걸쳐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개적 평가를 받아 수정·보완되도록 해야 한다. 작성된 논문은 늦어도 1개월 전에 심사위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심사 회수도 석사과정은 2~3회, 박사과정은 3~5회로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심사단계마다 심사위원이 지적하는 수정·보완되어야 할 내용과 종합의견을 문서로 작성·제출하고 그 사본을 학생에게도 전달해야 할 것이다.

V. 教授의 確保와 支援

'80년대 초에 급격히 증가한 대학생수에 비해 교수의 증가는 이에 따르지 못하여 교수의 부담이 學部生을 가르치는 데만도 과중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82년말 현재 38개 종합대학교의 50%가 교수 1인당 학생수는 40명을 넘고 있는가 하면, 55명을 초과하는 사립대학도 있다. 따라서 適當 授業時間數는 일부 국립대학을 제외하고 15~21시간이나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대학원 교수는 대체로 학부 강의를 겸하게 되어 있으므로 학부학생의 급증은 그만큼 대학원 교수부담을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더우기 大學院 敎育의 強化라고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구체화된 대학원생의 급격한 증가는 사태를 가일층 악화시켰던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수업부담은 대학원 수업부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과중한 수업부담으로 인해 교수 자신은 대학원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원 교육은 학부과정과는 달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치중해야 된다는 전통적 대학원 교육관도 이를 합리화해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수업시간 단축이 빈번한 것 같고 학생들도 수업에 대한 열의가 저조한 경우도 적지 않음을 들 수 있다. 특히 박사과정 지도교수가운데에는 지나치게 權威主義에 빠지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溫情主義로 지도에 임하는 교수가 있어 敎授-學習過程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교수 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학부강의 외에 평균 1~2과목 맡고 있는 대학원에서의 교수의 부담을 학부강의와 같은 수준 내지 그 이하로 간주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하겠다. 대학원 수업의 부담을 가볍게 인정하거나 교수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데서 대학원 교육이 학부강의의 부수물로 전락되는지도 모른다. 더우기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은 교수가 그 분야의 지도교수의 책임을 맡는 일이 있다면 과도기 현상으로 보고 싶다.

고등교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地方의 敎

授들은 수도권으로 흡수되어 지방대학은 더욱 교수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단시일내에 교수는 양성·확보될 수 없고 충원은 급한 상태여서 교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一流大學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의 質은 教授의 質에 크게 좌우된다는 상식적 논리를 들지 않더라도 교수의 확보는 대학원생 증가에 先行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교수의 역할은 수업 외에도 연구활동, 논문지도, 그리고 기타 학생지도 등 해야 할 일이 다양하고 많다. 그러나 현실은 과중한 수업부담으로 수업 외의 활동에는 거의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다. 더우기 學內 학생문제로 비연구업무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논문지도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원 교수의 확보는 수업부담만이 아니라 논문지도, 연구활동, 학생지도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研究費와 助教 및 研究施設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교수들의 연구업적은 교수 자신의 能力發展만이 아니라 대학원 교육에도 크게 공헌하는 二重效果가 있다는 점에서 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行·財政的 支援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학원 교육이야말로 연구하는 풍토 속에서 발전된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수확보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海外 교포 교수의 유치, 연구소, 기업 또는 행정부의 전문가 초빙교수제 실시, 현직 교수의 해외유학, 국제교류의 촉진, 박사학위 없는 현직 교수의 학위과정 이수, 권장 등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一流大學의 대학원만이라도 집중 육성하여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교수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結 語

오늘날 우리 사회가 대학원에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은 지대하다. 창조적 학술진흥, 교수·학자의 양성, 산업발전에 필요한 고급두뇌인력의 양성 등에서 대학원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원의 급격한 양적 팽창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사실 대학원은 學部에 비해 뚜렷한 특색이 없고 형식과 구색만 맞춘 경우가 많아 그 內實面에서는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 선결을 요하는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 교육이 이념과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학부교육과 다른 대학원의 독자적 교육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대학원의 성격도 당분간 교수·학자의 양성과 학술진흥을 추구하는 學問 중심의 學位課程과 사회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특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職業 중심의 學位課程으로 二元化하여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대학원 학생 선발제도의 타당성을 보다 높임으로써 기대수준의 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전공시험과 외국어시험 성적 외에 대학성적, 연구계획서, 면접시험, 추천서 등이 入學査定에 반영되어야 한다. 入學定員도 불필요하게 과대 책정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학생은 철저한 대학원 교육을 받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컨대, 학위 취득의 소요 학점을 늘리고 선택과목과 연구학점(논문지도 내지 실험실습)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도 개방적, 협동적, 광역적 프로그램으로 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 평가와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하되 보다 효율화하고 논문지도와 심사과정도 강화하여 학위의 量産·濫發과 논문의 질적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네째, 교수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장·단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교수 충원의 해외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류 대학원만이라도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재정 투자를 크게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제한된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공정한 대학원 평가에 따른 差等的 支援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